

『漢城旬報』 및 『漢城周報』의 과학기술 기사로 본 고종시대 서구 문물 수용 노력*

김연희 (연세대학교)[†]

1. 머리말

이 글은 고종시대 발간된 『한성순보(漢城旬報)』와 『한성주보(漢城周報)』에 게재된 과학기술 기사를 통해 조선정부의 서구 문물 수용 노력을 살펴본 것이다.

『한성순보』는 1883년 10월 31일(음력 10월 1일) 관보로 창간되었고, 『한성주보』는 『한성순보』가 갑신정변으로 폐간된 지 13개월 만인 1886년 1월에 발행 기간을 10일(순보)에서 7일(주보)로 바꾸어 발행된 신문이다.¹⁾ 24면(주보는 20면)으로 구성된 이 신문을 10일(주보는 7일)마다 발행하기 위해서는 대량 인쇄가 가능한 서양식 인쇄 시스템이 요구되었다. 조선정부는 일본에서 수동원압식 납연인쇄기와 활자 같은 관련 기기를 수입했다. 신문 발행은 개화 정책을 수행하던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동문사 소속 박문국이 담당했다.²⁾ 이 신문은

* 투고 2010년 10월 29일. 심사 2011년 3월 14일. 게재확정 2011년 3월 29일.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NRF-2009-551-H00002)로 이 논문을 세심히 살펴 문제점을 지적해주고 비판해주신 심사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1) 이글에서의 年期는 양력이다. 또 이글에서는 관훈클럽 영인, 『한성순보(漢城旬報)』, 『한성주보(漢城周報)』(1983)를 이용했다.

2) 이때 사용된 활자는 일본의 스키지(築地)활판소에서 수입된 한자 활자였다. 크기는 현재의 활자 크기 단위로 보면 약 10포인트 정도여서 활자 단위를 따서 '4

약 3천부가 발행되어 전국 곳곳에 배포된 것으로 추정된다.³⁾

『한성순보』와 『한성주보』는 개항 직후인 1880년대 조선정부의 움직임을 살피는 데에 중요한 사료로 주목받아왔으며 관련 연구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어 적지 않은 결과가 축적되었다. 그 가운데에는 발간의 역사적 의의와 배경과 관련한 연구를 포함해 『한성순보』 및 『한성주보』에 드러난 개화사상과 부강론의 성격 분석, 정보 수집 노력, 국제 질서 인식 등을 다룬 연구들이 있다.⁴⁾ 그리고 『한성순보』와 『한성주보』에서 출처를 밝힌 기사들을 중심으로 정보원을 추적한 연구도 있다.⁵⁾ 또 국내 관보 기사만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이 기사들의 소통방식이 전통적인 조보 양식을 계승하고 있어 전통성을 배제한 간행물

호 활자 또는 한성체라고 불렀다. 이에 대해서는 <http://www.presskorea.or.kr> (2010년 3월 5일 접속)을 참조할 것.

- 3) 정진석, “『한성순보』, 『한성주보』에 관한 연구”, 『신문연구』 36 (1983), 111-118쪽; 당시 柳重敦는 “傳示京中諸坊里, 以及外三百六十州”로 『한성순보』의 배포 범위를 밝혔다. 柳重敦, 『省齋文集』 卷之, <http://db.ink.or.kr> (2011년 1월 6일 접속). 한편 『한성순보』는 구독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전국에 무료로 배부되었으나 『한성주보』는 한성에 사는 사람은 박문국에 와서 가져가면 되었고, 지방에 사는 사람은 우송비 50문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받아볼 수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한성순보』, 1883년 10월 31일, 표지 4; “本局公告”, 『한성주보』, 1886년 1월 25일을 참조할 것. 이 공고는 매 호 마지막에 게재되어 있다.
- 4) 『한성순보』와 『한성주보』에 대한 연구는 1983년 관훈클럽에서 『한성순보』 발행 100주년을 기념해 진행한 사업을 통해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 이때 발표된 것으로는 최준, “『한성순보』의 사적 의의”, 『신문연구』 36 (1983), 23-32쪽; 정진석, 같은 논문, 74-142쪽; 박성래, “漢城旬報와 漢城周報의 근대과학의 수용 노력”, 『신문연구』 36 (1983), 39-73쪽; 趙璣濬, “漢城旬報와 漢城周報의 社會經濟的 意義”, 『신문연구』 36 (1983), 6-21쪽 등이 있다. 그밖에 연구로는 李光麟, “漢城旬報와 漢城周報에 대한 一考察”, 『韓國開化史研究』 (一潮閣, 1974), 620-102쪽; 김봉진, “『漢城周報』의 발행과 조선의 만국공법 수용”, 『한국 전통 사회의 구조와 변동』 (문화과 지성사, 1986), 149-208쪽; 이수룡, “『한성주보』에 나타난 정치, 경제 및 사회론의 성격”, 『동양공업전문학교 논문집』 제8호 (1986), 35-15쪽; 최준, “『漢城周報』의 뉴스원에 대하여”, 『신문학보』 2 (1969), 12-20쪽; 문성규, “『한성순보』와 개화사상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0); 한보람, “1880년대 조선정부의 개화정책을 위한 국제정보수집”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등이 있다.
- 5) 최준, 같은 논문, 16-18쪽; 정진석, 같은 논문, 105-110쪽.

이 아님을 지적한 연구도 있다.⁶⁾ 기사 내용에 대한 점검과 분석 연구도 잇달았다. 집록이나 국내 사보, 논설 등에서 다른 기사의 외교, 정치, 산업과 같이 특정 주제만을 중심 과제로 삼은 연구들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이 연구들 대부분은 이 신문에 서구의 과학과 기술 관련 기사가 많이 실렸음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과학기술 관련 분야는 『한성순보』와 『한성주보』의 연구에서 거의 취급되지 않았다.⁷⁾ 박성래가 과학기술 분야의 기사들을 분류하고 정리해 발표한 개괄적 연구 이래로 하나의 기사만을 선택해 중점적으로 다루는 연구들만이 발표되었을 뿐이다.⁸⁾ 이 연구들은 『한성순보』와 『한성주보』의 과학기술 기사들이 담당 역할에 주목하지 않았다.

이 연구는 바로 『한성순보』와 『한성주보』의 과학기술 기사들에 부여된 사회적 역할을 추적해보려는 것이다. 1876년 개항을 전후해 조선정부, 특히 고종과 개화관료들은 서양의 문물, 특히 조선의 것과는 전혀 다른 체계를 가지고 다른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는 과학과 기술에 주목했고, 이를 도입하기 위해 국가 통치 기구들을 신설하거나 재조직했다.⁹⁾ 이 신문이 관보였기에 조선정부의 시책을 홍보하려 관련

6) 이석호, “한국 근대언론에 이어진 전통적 언론현상에 관한 연구-『한성순보』와 『한성주보』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3); 조보의 기원과 폐간에 대해서는 김영주, “조보(朝報)에 대한 몇 가지 쟁점”, 『한국언론정보학보』 43호 (2008), 247-281쪽을 참조할 것.

7) 국제 관련 정보를 꼼꼼히 분석한 한보람조차 과학기술관련 기사에 대해서는 매우 적게 다루었다. 한보람, 앞의 논문, 56-62쪽; 64-65쪽.

8) 박성래, 앞의 논문, 39-73쪽; 『한성순보』와 『한성주보』의 기사를 분석한 연구들이 진행되기는 했다.; 이경언, 신현용, “한성순보와 한성주보의 과학, 수학 관련 기사에 관한 고찰”, 『A-수학교육』 48-3 (2009), 265-285쪽; 이동인, 곽해영, “論電氣(漢成旬報 4號 1883. 11. 1 發行)”, 『전기의 세계』, 37권 제7호 (1988), 59-63쪽; 김찬기, “『한성순보』소재 『아리사다득리전』에 관한 연구”, 『현대문학 이론연구』, 21-0 (2004), 47-62쪽.

9) 이글에서 개화관료라 지칭하는 부류는 급진, 온건을 막론하고 국정 운영에 서양의 문물을 도입해 개혁하고, 이를 통해 부국강병을 이루려했던 관료들을 의미한다.

기사를 보도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매체에 게재된 과학기술 관련 기사들이 매우 방대하게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이런 보도태도는 정책 홍보 이외의 다른 의도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성순보』 및 『한성주보』의 과학기술 관련 기사들을 정리해 조선정부의 매체 활용 의도를 검토해보려 한다. 이를 위해 『한성순보』 및 『한성주보』의 서양문물관련 기사 가운데 서양 과학기술에 관한 기사들의 출처, 기사 내용에 내재된 조선정부 개화관료들의 서양 과학기술에 대한 태도 등을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당시 신설된 정부조직, 시행된 정부정책 등과 『한성순보』 및 『한성주보』의 과학기술 기사들과의 관계를 점검해 게재 의도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더불어 이런 정책들과 관련 없어 보이는 과학기술 기사들도 살펴보려 한다. 이들 기사들은 주로 한문으로 보도되었지만 국문, 혹은 국한문으로도 게재되었음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비록 이런 기사들이 28회(『한성주보』는 모두 99호까지 남아있다)까지만 보이지만,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매체에서 국문으로 서양 과학기술 관련 기사를 보도했다는 점은 획기적인 일이며 따라서 이 기사들에서 이 매체에 부여한 역할을 살필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한성순보』 및 『한성주보』의 과학기술 기사들을 검토하는 작업을 통해 고종시대 서구 문물 수용을 위한 노력들이 다양하게 전개되었음을 보이는 한편 『한성순보』 및 『한성주보』의 사회적 의미와 역사적 의의를 설정하려 한다.

2. 『한성순보』 및 『한성주보』에 나타난 서구 문물 인식

1) 『한성순보』 및 『한성주보』의 발행 목적

『한성순보』는 1880년대에 조선정부가 발행한 신문이다. 신진개화 세력의 핵심인물이었던 박영효(朴泳孝, 1861-1939)가 일본에서 수신사 업무를 마치고 귀국한 후 고종에게 결과를 보고하던 중 신문 발간

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발행 준비가 시작되었다. 고종은 박영효가 판윤으로 있던 한성부에서 신문발행을 주관, 추진하게 했지만 박영효가 광주부 유수로 옮기게 됨에 따라 관련 업무를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에 설치된 동문학 산하 박문국으로 이관시켜 발간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다.

『한성순보』는 기본적으로 조선정부가 전통적으로 발행해온 조보(朝報)를 계승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고 평가된다.¹⁰⁾ 하지만 이 신문에는 개화관료의 중심에서 발간이 발의되고 개화주무 부서에서 발행을 주관했기에 개화관료의 의도가 그대로 관철되어 있어 조보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그것은 『한성순보』의 ‘순보서(旬報序)’에 잘 드러나 있다.¹¹⁾ 그들은 신문에 외국 지리, 역사, 문화, 인물 등의 서양 학문과 공법 등의 새로운 국제 질서와 관련한 지식을 광범위하게 게재해 독자들의 견문을 넓히겠다고 밝혔다.¹²⁾ 서양의 경제개혁, 산업 개발, 서양 근대과학기술, 교통통신 발전상 등을 보도해 독자들에게 서양의 발전상을 알려, 그들을 계몽하고 개화에의 참여를 촉구하여 지지 세력화 하겠다는 의도였다. 이 생각은 창간호에 실렸던 “지구론”에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개화관료들은 “지구론” 끝부분에서 이런 류의 기사들을 “신중히 골라 동지들에게 한 달에 세 번씩 인쇄하여 고하겠다”고 하면서, 선비들이 이를 연구해 백성을 편하게 하고 국가 보존을 가능하게 해줄 것을 촉구했던 것이다.¹³⁾ 이는 왕명출

10) 이석호, 앞의 논문, 95쪽.

11) “旬報序”, 『한성순보』, 1883년 10월 31일.

12) 『한성순보』와 『한성주보』에서 독자를 지칭하는 말로 “同志”를 사용한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라 할 수 있다. 독자를 지칭하는 의미로 『한성순보』에서 ‘社告’를 포함, 6번 사용했는데, 그 가운데 과학기술 관련 기사에서 반을 찾을 수 있을 정도였다. 그들은 외직 관리, 지방의 유학자를 동지로 지칭하며 그들과 동질감을 드러내 그들의 지지와 참여를 유도했다. “지구론”, 『한성순보』, 1883년 10월 31일; “지구가 태양을 돌며 절후를 이루는 圖說”, 『한성순보』, 1884년 2월 17일; “萬國衛生會”, 『한성순보』, 1884년 5월 5일.

13) “지구론”, 『한성순보』, 1883년 10월 31일.

남과 상훈을 포함한 인사이동 상황 정도를 주내용으로 삼았던 조보와는 판이한 편집 태도였다.

더 나아가 신문 편찬을 주도한 개화관료들은 자신들이 펴내는 신문이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잘 살펴 볼 수 있는 기사가 『한성주보』의 ‘신문의 이익에 대해 논함’이다.¹⁴⁾ 그들은 신문을 상의하달과 하의상달의 소통 도구로 여겼고, 이런 소통으로 국내 정치 현안뿐만 아니라 이제 막 진입한 국제 사회에서 국의 안위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사람의 지각을 늘리고 국가를 부강하게 할 수 있는 계책이면 모두 탐방(探訪)하여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신문 발행의 주요한 목적이고, 이를 통해 백성들의 교화를 도모하는 한편 국가 보전이 백성의 안위와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대개 천하 사람들은 어리석어 무지하면 남에게 뒤지는 것을 달게 여기지만, 지혜로워 어리석지 않으면 남만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겨 날마다 떨쳐 일어나 갈고 닦아 잠시도 쉬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결같이 임금에게 충성하고 국가를 사랑하며, 이(利)를 일으키고 폐(弊)를 제거하는 것으로 마음을 삼는다. 이는 국가가 망하고 임금이 죽으면 자기의 가정이 홀로 다스려질 수 없고 자기의 일신(一身)이 홀로 보존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¹⁵⁾

이런 생각은 신문 편집에 그대로 투영되었다. 특히 신문 편집에 관여하거나 이를 담당했던 개화관료들은 천하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데에 필요한 기사들을 “안으로는 국방의 힘, 경제의 의의, 시장의 제도, 화폐제도, 산택(山澤)의 이익, 조세의 사무, 권량(權量)의 신중성, 공작(工作)의 용도, 역참의 위치, 도로의 정비 등 모두 국가 계획에 관련이 있는 모든 것”으로 설정했다. 또 “밖으로는 각 국의 정교(政

14) “신문의 이익에 대해 논함”, 『한성주보』, 1886년 9월 27일.

15) 위의 글.

敎)에 관한 음체(隆替), 풍속의 호오(好惡), 기후의 한난, 토지의 옥척(沃瘠), 국토면적의 광협, 산천의 험이(險夷), 인민의 중과, 군인의 용겁(勇劫) 등과 상무(商務)의 수지(收支), 기계의 교졸(巧拙), 격치(格致)의 단예(端倪)”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¹⁶⁾ 이런 주제들 가운데 『한성순보』와 『한성주보』의 기사 가운데 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분야는 다른 국가 관련 지략(誌略), 그리고 기술과 격치 등이었다.

약 1년 동안 발행되어 전국의 외직 관리들과 유학자들에게 배포되었던 『한성순보』의 영향력은 적지 않았다. 위정척사를 주장했던 김평묵(金平默)이나 그의 제자로 설악산에 은거했다고 전해지는 유중교(柳重敎)에게까지 『한성순보』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유중교는 김평묵에게 『한성순보』가 “크게 불만하다”고 전하기도 했다.¹⁷⁾ 외직에 근무했던 오횡묵(吳弘默)은 1894년 펴낸 『여재촬요(輿載撮要)』에 『한성순보』의 ‘지구전도(地球全圖)’, ‘지구도해(地球圖解)’, ‘지구자전성세도설(地球自轉成歲圖說)’ 등의 기사를 그대로 옮겨 싣기도 했다.¹⁸⁾ 이 책은 꽤 많은 판본이 전해지는 것으로 보아 상당히 많이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¹⁹⁾

갑신정변의 여파로 『한성순보』가 폐간되자 고종과 개화관료, 그리고 이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접했던 사람들은 이를 매우 큰 손실로 여겼다.

16) 위의 글.

17) 金平默, 『重庵文集』 卷之二十, 1884년 5월 2일; 柳重敎, 앞의 책, 上重庵先生.

18) 吳弘默은 『한성주보』가 발간되었던 1887년 3월 23일까지 박문국 주사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박문국 주사에서 정선군수로 발령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박문국에서 언제부터 근무했는지는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승정원일기』, 1887년 3월 23일 기사를 참조할 것. 그의 『한성순보』에의 친화력은 그가 『한성주보』 편집에 관여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가 사용한 글들은 1883년과 1884년에 나온 글들임을 미루어 창간 초기부터 이에 관심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19) “地球全圖”, “地球圖解”, “地球論, 論洲洋”, 吳弘默, 『輿載撮要』(奎6695); 『한성순보』, 1883년 10월 31일; “地球園日圖”, “地球園日圖解”, 『한성순보』, 1884년 1월 30일; “地球園日成歲書圖說”, 『한성순보』, 1884년 2월 17일.

… (漢城旬報를) 상하의 관민(官民)이 매우 편리하게 여겼더니 갑신정변(甲申政變)이 일어나 박문국(博文局)이 철폐되고 순보(旬報)가 간행되지 않게 되자 상하 관민(官民)이 모두 말하기를 “...과거 순보가 간행되지 않았을 적에는 불편한 것을 모르고 지냈더니, 순보(旬報)가 간행되다가 중단되니 겨우 떠났던 이목(耳目)이 다시 어두워지는 것 같다”고 하며 모든 사람들이 간행을 바라고 폐간을 바라지 않았다.²⁰⁾

이런 아쉬움 때문에 인쇄시설이 복구되지 않았음에도 7일 간격의 『한성주보』가 간행되었다. 갑신정변으로 폐간된 지 13개월 만에 『한성순보』는 심지어 발행 간격을 줄여 발행되었던 것이다.

2) 『한성순보』나 『한성주보』를 통해본 개화관료들의 서양과학기술 인식

『한성순보』나 『한성주보』에는 매우 많은 분량의 과학기술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다. 이 신문에 나타난 서양 과학기술, 특히 과학에 대한 태도 형성에는 청의 양무운동의 영향이 컸다. 양무운동에서 서양 과학기술을 바라보는 태도는 기본적으로 서양 과학기술의 뿌리가 중국을 포함한 동양에 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신문 기사 중 ‘태서문학원류고(泰西文學原流考)’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이 기사는 『한성순보』뿐만 아니라 『한성주보』에도 반복 게재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 기사의 내용이 그만큼 개화관료들에게 중요했기 때문이었다.²¹⁾ 이 기사는 서양과학의 역사를 서술하면서, 그 기원을 중국을 포함한 동양의 지적 전통 속에서 찾아 연관성을 지적함과 동시에 서양 학문의 분류, 수학,

20) “周報序”, 『한성주보』, 1886년 1월 25일.

21) “泰西文學原流考”, 『한성순보』, 1884년 3월 8일; 이 기사는 『한성주보』에 “西學原流”, “續錄西學原流”의 제목으로 다시 실렸다. “西學原流”, 『한성주보』, 1887년 2월 28일; “續錄西學原流”, 『한성주보』, 1887년 3월 7일; 이 기사는 1857년 선교사인 Alexander Wylie가 상해에서 발행한 『六合叢談(Shanghae Serial)』이라는 잡지 5호에 실렸던 기사로 보인다. Wylie와 Shanghae Serial에 대해서는 Benjamin Elman, *On Their Own Terms: Science in China, 1550-1900* (Mass., Harvard University, 2005), 297-302쪽을 참조할 것.

화학, 격치 등의 특징, 주요 내용,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Science’의 번역어로 쓰였던 ‘격치’를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현재 물리에 해당하는 분야를 전통의 격치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격치(格致)의 학문은 취지가 사물의 이치와 까닭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포괄적으로 설정하기도 했다. 또 ‘사물을 궁구한다’는 동양 전통적 의미뿐만 아니라 “조물주의 이치를 연구”하는 것이라는 서양 선교사가 부여한 기독교적 의미도 포함했다.²²⁾ 조선의 개화관료들은 ‘격치’의 광의와 협의의 의미를 병용했지만, 기독교적 의미보다는 전통적 의미를 더 크게 강조했음을 『한성순보』와 『한성주보』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조선의 개화관료들은

22) “泰西文學原流考”, 『한성순보』, 1884년 3월 8일; 중국에서 ‘격치’란 단어는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이 이 기사에 나타나 있다. 이 기사가 광의와 협의로 격치를 정의하면서 “조물주의 이치를 연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등 기독교적 영향을 굳이 피하지 않았고, 서학이 중국의 지적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음 역시 역설하고 있다. 이렇게 격치가 여러 의미를 가지는 일은 청일전쟁 이전 중국의 과학과 기술을 둘러싼 知的 조류를 반영한 것이다. 중국에서 양무운동이 전개되기 전까지 ‘격치’는 사물의 원리를 궁구하며 신의 자연 설계를 탐구하는 분야로 예수교 선교사들에 의해 차용되었다. 양무운동을 지원했던 영미 선교사들 역시 ‘science’를 “사물의 원리를 탐구하고 지식을 확장하는” 격치로 번역하면서, 동시에 이전의 예수교 선교사들이 사용했던 사물의 ‘신의 창조와 더불어 ‘조물주의 이치 연구’를 포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의 유학자들은 선교사들의 의견을 공유하기보다는 과거 지적 전통을 계승하려 했다. 특히 과학 용어들을 번역하면서 전통 천문학, 수학, 화학, 의학 등에서 전용 및 변용이 가능한 용어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런 작업을 통해 서양 과학이 중국의 지적 전통에 연원을 두고 있음을 보이려 노력했다. 이처럼 서양 과학기술을 전달한 선교사들과 중국 유학자들은 ‘격치’의 의미에 합의하지 못했다. 따라서 ‘격치’라는 단어는 쓰임에 따라, 사용자에 따라 달라지는 변종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이 새로운 전환을 맞게 된 것은 1894년 청일전쟁에서 패전한 후였다. 패전 후 중국 지식인들은 서양 근대 자연과학의 흔적을 중국의 지적 전통에서 찾아내는 작업을 폐기했다. 따라서 이전의 변용은 사라졌으며, 동시에 다윈의 자연선택을 수용함에 따라 선교사에 의한 굴절 역시 폐기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Benjamin Elman, 앞의 책, 225-395쪽을 참조할 것; 청일전쟁 이후 ‘science’는 일본에서 사용하던 ‘과학’이라는 말로 번역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야부우치 기요시, 전상운 역, 『중국의 과학문명』 (민음사, 1997), 198쪽 참조; 1880년대 『한성순보』와 『한성주보』에서 이용되던 ‘격치’는 청일전쟁 이전 중국에서 여러 의미가 내포된 용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었다.

양무운동에 참여한 중국학자들보다 오히려 격치의 실용성을 더 강조했다. 그것은 ‘사의(私議)’ 등 개화관료가 쓴 글들에서 중국학자들의 고증적 태도를 찾아볼 수 있는 기사들보다는 삶을 풍요롭게 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도구임을 부각시키는 기사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격치’는 기술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했던 것이다.

격물치지(格物致知)는 치국평천하의 근본이기 때문에 치국평천하에 뜻을 둔 사람은 반드시 먼저 여기에 힘을 쏟아야 한다. 석공(石工)들이 조각하는 방법과 만물을 만들어내는 방법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깨닫기 어려운 것을 먼저 깨달아 알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만들기 어려운 것을 먼저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 또한 격물치지(格物致知)의 공효(功效)인 것이다. ... 격물하여 치지할 수 있으므로 생재(生財)에 대해 걱정할 것이 무엇이고 이용에 대해 어려워 할 것이 무엇이며, 내수외교(內修外交)에 대해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는가²³⁾

이처럼 조선의 개화관료는 ‘격치’의 실용성을 수용했다. 이런 태도는 『한성순보』와 『한성주보』는 다양한 주제와 방대한 양의 서양 과학기술 관련 기사들에 그대로 관철되어 있다. 더 나아가 개화관료들은 격치의 신속한 수용을 추구했다.

3) 부국강병을 위한 『한성순보』, 『한성주보』

조선 개화관료들은 부국강병의 도구라고 판단한 서양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중앙 고급 관료는 물론 외직 관리와 여론 주도층인 전국의 유학자들을 설득하는 일에 『한성순보』와 『한성주보』를 이용했다. 이를 위해 먼저 ‘부국강병’이 공자와 맹자 등 성현의 말씀과 배치되지 않음을 보임으로써 부국강병을 합리화하려 했다.²⁴⁾

23) “論開石鑛”, 『한성주보』, 1886년 9월 13일. 이 기사는 ‘私議’란에 실렸는데 “동쪽의 이 나라는 바닷가 조그만 땅덩이예다 건국했지만” 등의 어구 등으로 비추어 조선의 개화관료가 쓴 글임을 알 수 있다.

24)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연희, 「고종시대 근대 통신망 구축 사업」 (서울대

하지만 이런 합리화만으로 부강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개화관료들 역시 이점을 알고 있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나라는 성명(性命)과 의리(義理)의 학문에는 그 법이 완비되었”지만 “전곡갑병(錢穀甲兵)의 기술과 농·공·상고(農·工·商賈)의 설(說)”과 기술은 부족했다.²⁵⁾ 서양이 부강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조선이 갖지 않은 과학과 기술 때문이라고 보고, 이를 신속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런 생각은 『한성주보』의 기사 ‘논학정(論學政)’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²⁶⁾ 이 기사에는 의리지학이 발전한 조선에 필요한 것은 농상(桑)공상업과 배와 수레의 제조 및 광산업 등의 개발에 필요한 서양의 기술이라는 주장이 펼쳐져 있다.

농업(農業)·상업(桑業)·공업(工業)·상업(商業) … 주차(舟車)·전광(電鑛)·화폐에 이르기까지 (중략) 저들은 공교한데 우리는 졸렬하고 저들은 빠르는데 우리는 느리고 저들은 예리한데 우리는 무디니,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저들의 장점을 취해다가 우리의 단점을 보완하고 우리의 단점을 버리고 저들의 장점으로 나아가 그것으로 산업을 제정하고 재화를 증식시켜 날로 부강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일이다.²⁷⁾

개화관료들은 이 도입이 지연되면 이런 부국강병의 토대 자체가 부재한 조선이 뒤늦게 편입한 국제사회에서 경쟁은커녕 국가 보전도

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6), 38-39쪽 참조.

25) “論學政 第三”, 『한성주보』, 1886년 2월 15일.

26) 3회 연재로 실린 이 “논학정”은 “私議”난에 실렸다. 이 기사 중간에 “箕子가 동쪽으로 건너와 8조목을 설치하여 백성에게 교화를 실시함으로” 시작한 단군 이래의 국가로 조선을 설명하고 있으며, 1886년 10월 11일자 “사의”난의 “광학교”에서는 이 기사가 호보에 실린 글을 옮겨 실었음을 밝히는 한편 “(이전의 학교에 관한 글이) 논의가 유창하지 못하고 조규에 분명하지 못했으므로 항상 식견이 좁았음을 한해 왔다. (중략) 우리의 소견이 천박함을 깨닫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런 점을 미루어 “논학정”은 복간 당시의 국내 필진이 쓴 글임을 알 수 있다.

27) “論學政 第二”, 『한성주보』, 1886년 2월 1일.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조선의 백성들은 공업과 상업에 익숙하지 않아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크게 뒤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서양의 정교하고 발전된 농상공업 기술을 도입해야 경쟁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백성에게 격치를 가르쳐 능력 개발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해외(海外) 각국(各國)과 조약을 체결하여 화친을 맺고 있다. 따라서 화친하면 서로 상리(商利)를 다투게 되고 전쟁이 나면 병리(兵利)를 다투게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은 백성을 데리고 그들과 경쟁하여 승부(勝負)를 다투기는 참으로 곤란한 것이다. (중략)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오늘날 해야 할 급무는 학정(學政)을 신장시키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신장시킬 것인가. 학교를 널리 설립하여 옛 사람이 교화하던 도리를 회복시키고 겸하여 농상병공의(醫) 등의 기술을 연구하게 하는데 달려 있을 뿐이다.²⁸⁾

국제 경쟁에서 승리하고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 필수적인 민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백성을 가르쳐야 하고 그러려면 학교를 설립해야 했다. 학교를 통해 “업(業)을 배워 현능(賢能)에 따라 분직(分職)하면, 준제들이 날로 창성하여 정치가 밝아지고 우리 도(道)가 광명해질 것은 날짜를 정해 놓고 기약”하는 것과 같은 일이 가능했다.²⁹⁾ 학교에서 백성들을 교육시키면 부국강병은 어렵지 않게 이를 것으로 전망했던 것이다.³⁰⁾

특히 주목받은 학교는 부국강병의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한 기술학교였고, 일본의 직공학교가 예로 거론되었다. 각 학년마다 이수해야 할 과목들은 화학, 물리, 수학, 기기, 설계 등이었다. 이 과목들을 1학년과 2학년이 8과목을 수학하고, 3학년부서는 화학공예와 기계공예

28) “論學政 第一”, 『한성주보』, 1886년 1월 25일.

29) “학교”, 『한성순보』, 1884년 3월 18일.

30) “학교”, 『한성순보』, 1884년 3월 18일; “論學政 第三”, 『한성주보』, 1886년 2월 15일.

가운데 하나만을 선택해 2년간 각각 10과목, 13과목을 이수해야 했다.³¹⁾

조선에서 이런 기술학교 설립은 매우 시급했지만, 당시 사정으로는 전문기술을 전수하는 기술학교는커녕 서양식 교육의 초보단계인 소학교 설립조차 어려웠다. 아직 서양식 학교의 체계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였고,³²⁾ 무엇보다 과학을 포함한 서양 학문을 교육시킬 수준의 사람들이 없었다. 관리와 양반 자제들에게 서양 학문을 제공할 목적으로 1886년 세워진 육영공원조차 3명의 미국인 교사가 입국한 후에야 운영할 수 있었던 일은 이런 상황을 잘 보여주었다. 조선정부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외국 유학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이들이 학습을 마치고 귀국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따라서 개화관료들은 전문적인 기술교육은 불가능하더라도, 서양 인쇄방식을 도입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부수를 인출하는 『한성순보』나 『한성주보』를 통해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서양 과학기술의 내용과 서양 문물들을 자주 보도함으로써 서양 과학기술 지식 체계에 친숙한 여건이라도 만들려 했다. 나아가 “경륜과 재주와 지혜를 갖춘 선비들이 함께 일어나 이를 토론하고 날로 계발”할 것을 기대했다.³³⁾

4) 『한성순보』와 『한성주보』의 과학기술 기사 출처

① 외국 잡지 및 신문

『한성순보』나 『한성주보』에는 매우 많은 기사들이 게재되었다. 『한성순보』는 크게 ‘국내관보(國內官報)’, ‘국내사보(國內私報)’, ‘각국

31) “論學政 第三”, 『한성주보』, 1886년 2월 15일.

32) 이들 학교 및 교육에 대한 정보 수집 기사로 “학교”, 『한성순보』, 1884년 3월 18일; “기예원”, “박물원”, 『한성순보』, 1884년 4월 16일; “영국서적박물원”, 『한성순보』, 1884년 4월 16일; “덕국지략속고”, 『한성순보』, 1884년 4월 25일; “태서각국소학교”, 『한성순보』, 1884년 8월 31일; “덕국의 학교” 『한성주보』, 1886년 3월 14일; “법국학정”, 『한성주보』, 1886년 8월 16일 등을 들 수 있다.

33) “지구론”, 『한성순보』, 1883년 10월 31일.

근사(各國近事), ‘논설’, ‘집록’ 등으로 기사의 범주를 나누었다. 이 기사들을 국내기사, 외국기사, 집록과 같이 더 큰 범주로 분류해보면 국내기사 407건, 외국기사 1019건, 집록 116건등으로 집계된다.³⁴⁾ 이를 중심으로 『한성주보』와 비교해보면, 『한성주보』에서 국내 기사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한성주보』 역시 외국 관련기사가 반 이상을 차지했는데, 이는 『한성주보』도 국제 상황과 서양 과학 기술 문물에 주목했고, 정보 수집에 열심이었기 때문이었다.³⁵⁾ 『한성순보』와 『한성주보』에서 과학기술 관련 기사는 대부분 ‘각국근사’나 ‘집록’에서 취급되었다. 비록 기사 건수로는 7.5%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대체로 매우 긴 글들임을 감안하면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은 다른 어느 분야보다 많았다.³⁶⁾ 다룬 내용은 천문학, 기상학, 화학, 전기학 뿐만 아니라 기기, 제철, 통신, 교통, 그리고 잠업, 농업과 관련한 것들이었다.³⁷⁾

이 기사들은 주로 외국 특히 청에서 1860, 1870년대, 심지어 1880년대 북경, 상해 등지에서 발간된 잡지 및 신문과 상해(上海) 강남제조국(江南製造局)에서 출간된 한역 서양 과학기술서들에서 가져왔다. 『동경일일신문(東京日日新聞)』, 『우편보지신문(郵便報知新聞)』, 『동경시사신보(東京時事新報)』, 『일본관보(日本官報)』와 같은 일본 매체를 기사원으로 한 경우도 없지 않았지만 전체 24건(순보 11건, 주보 13건)에 불과해 중국의 약 300여건과 비교해보면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34) 정진석, 앞의 논문, 100쪽; 박성래, 앞의 논문, 40쪽.

35) 정진석, 앞의 논문, 101쪽.

36) 박성래, 앞의 논문, 41쪽.

37) 주제별로 기사를 분류하면, 천문학 포함 지구과학 관련 기사는 모두 51건(순보 28건, 주보 23건, 그 가운데 기상학 관련 기사 13건), 화학 관련 기사는 9건(순보 8건, 주보 1건), 무기 관련기사는 24건(순보 18건, 주보 6건), 광학(鑛學) 및 광업 관련 기사는 10건(순보 4건, 주보 6건), 교통 통신 관련기사는 67건(순보 48건, 주보, 19건), 도량형 관련 기사는 4건(순보 3건, 주보 1건), 의학 관련 기사는 7건(순보 6건, 주보 1건), 농업 및 잠상을 포함한 산업 분야 기사는 15건(순보 12건, 주보 3건) 등이다.

기사 건수뿐만 아니라 분량도 많지 않았고, 내용도 간단한 통계정보 정도에 불과했다. 예를 들면 미국, 독일, 러시아 같은 국가들의 철도 및 전신 가설 현황, 각급 학교 및 학생수에 관한 기사들이었다.

『한성순보』와 『한성주보』가 자주 인용하거나 전재한 중국의 잡지와 신문들은 주로 외국인 선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발행한 매체들이었다. 신문들로는 『상해신보(上海申報)』와 『항중외신보(香港中外新報)』, 『자림호보(字林滬報)』, 그리고 잡지로는 『격치휘편(格致彙編)』, 『중서문견록(中西聞見錄)』 등을 꼽을 수 있다. 『상해신보(上海申報)』에서 14건, 『항중외신보(香港報)』 등 홍콩 발행 신문에서 5건, 『자림호보(字林滬報)』에서 6건을 『한성순보』, 『한성주보』가 전재했다. 이들 기사들은 주로 수에즈 운하 공사, 대서양 해저선 가설 공사, 미국을 횡단하는 철도 공사와 같이 이른바 세계 3대 토목공사를 소개하거나, 사진전송과 같은 새로운 정보통신방식 등 최신 기술과 관련한 내용들을 다룬 것이었다. 또 지진이나 화산 폭발과 같은 자연재해, 하늘을 뒤덮은 붉은 빛과 같은 기상 이변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들 중국 발행 신문에서 새로운 기술, 새로운 건설사업 등에 대한 소개기사가 주로 전재되었다면 『격치휘편(格致彙編)』이나 『중서문견록(中西聞見錄)』, 『만국공보(萬國公報)』 같은 잡지에서는 과학기술과 관련한 장문의 해설기사들이 중점적으로 게재되었다.³⁸⁾ 특히 『한성순보』, 『한성주보』의 편집진이 『중서문견록』에서 20건이나 기사를 가져왔음은 주목할 만하다. 『중서문견록』은 1872년부터 1874년까지 북경(北京)에서 “서양 각국의 신문에 실린 근래의 일들과 천문, 지리, 격물의 학을 공부해 매일 한 번씩 출간”한 잡지로, 양무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중국인이나 중국에서 활동하는 서양인들을 집필진으로 해 정위량(丁韞良, William Martin)이 발행한 잡지였다.³⁹⁾ 이 잡

38) 『格致彙編』은 1876년 上海製造局에서 傅蘭雅(John Fryer)가 발행한 잡지였다. 『格致彙編』은 『中西聞見錄(The Peking Magazine)』을 다시 발행한 것이다. 『萬國公報』는 미 선교사 알렌(林樂知, Young J. Allen, 1836-1907)이 1868년 9월 上海에서 창간한 『教會新聞』(週刊)을 1874년 이름을 바꾸어 발행한 잡지이다.

기사 제목	게재 일자	출처	『기기화물선원류고』 게재여부
論土路火車	1884년 2월 7일	中西聞見錄 1호	○
飛車測天	1884년 2월 7일	中西聞見錄 23호	○
車輪軌道說	1884년 2월 7일	中西聞見錄 5호	○
懸空鐵路	1884년 2월 7일	中西聞見錄 26호	○
入水新法	1884년 2월 7일	中西聞見錄 9호	○
火輪船源流考	1884년 3월 8일	中西聞見錄 5호	○
占星辨謬	1884년 3월 8일	中西聞見錄 29호	
星學源流	1884년 3월 27일	中西聞見錄 2호	
權量新法	1884년 4월 6일	中西聞見錄 17호	
天時雨暘異常考略	1884년 4월 16일	中西聞見錄 18호	
顯微鏡 影燈	1884년 4월 25일	中西聞見錄 19호	
二氣燈之光	1884년 4월 25일	中西聞見錄 12호	
牛痘考	1884년 4월 25일	中西聞見錄 13호	
侯氏遠鏡論	1884년 5월 5일	中西聞見錄 25호	
泰西製鐵法	1884년 5월 15일	中西聞見錄 5호	○
續論泰西製鐵法	1884년 5월 15일	中西聞見錄 5호	○
泰西河防	1884년 5월 25일	中西聞見錄 8호	
英國水晶宮	1884년 6월 4일	中西聞見錄 13호	
法取火 ⁴¹⁾	1884년 6월 4일	中西聞見錄 ?호	
亞里斯多得里傳 ⁴²⁾	1884년 6월 14일	中西聞見錄 ?호	

표 1. 『中西聞見錄』 및 『機器火輪船源流考』를 출처로 한 『한성순보』, 『한성주보』 기사 [출처: 가운데 ‘?’ 표시는 『한성순보』, 『한성주보』의 기사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기사임]

지는 기사의 절반 정도가 천문, 지질, 물리, 화학, 철도기술과 광업, 전신 등과 같은 서양 근대 과학과 기술에 관한 글들이었다. 당시 북경대학이라고도 불렸던 북경 동문관에서 이 잡지를 교재로 이용하기도 했고, 동문관 출신들이 양무운동의 주축을 이루었던 만큼 양무운동에 미친 이 잡지의 영향은 매우 컸다.⁴⁰⁾

39) 『중서문견록』 (규중 4590), 표지 2.

40) Benjamin Elman, 앞의 책, 311쪽.

『중서문견록』이 출처로 된 기사 가운데에는 점성술의 문제를 다룬 ‘점성변류(占星辨謬)’⁴³⁾, ‘천시우양이상고략(天時雨暘異常考略)’⁴⁴⁾과 같은 기사도 있으며, ‘현미경영등(顯微鏡影燈)’⁴⁵⁾, ‘이기등지광(二氣燈之光)’⁴⁶⁾처럼 현미경과 환등기 같이 신기한 기기의 원리를 소개한 기사도 있었다. 또 성냥발명 과정과 전기분해를 이용한 점화의 원리를 함께 설명해 서양에서 발명된 불을 붙이는 도구들의 편리함과 유용함을 전한 ‘법취화(法取火)’⁴⁷⁾도 있었다. 이 기사는 기사 끝에 『중서문견록』을 출처로 밝혔지만, 정확한 게재 호수는 찾을 수 없었다. 이처럼 정확한 호수를 알 수 없는 기사로 애약瑟(艾約瑟, Joseph Edkins)이 썼다고 명기된 ‘아리스토텔레스전’이 더 있다.⁴⁸⁾

『중서문견록』을 복간했다고 표방한 『격치회편』에서 『한성순보』와 『한성주보』가 가져온 기사의 수는 『중서문견록』에 비하면 적은 편이다. 5개 기사가 『한성순보』에 실렸는데, 이 기사는 5화로 나누어 연재된 매우 긴 한 편의 글로 ‘역람영국철창기략(歷覽英國鐵廠記略)’이었다. 이 기사는 영국의 제철, 제강 공장, 무기 공장을 포함한 각종 철제품 생산 현장을 방문 취재한 것이었다.⁴⁹⁾ 『만국공보』에서 전제 한 과학기술 관련 기사는 모두 다섯 건으로 중국의 도서관 설립소식과 해설을 다룬 기사들과, 우두법과 영국에 세워진 정신병원을 설명한 기사, 그리고 2편으로 나누어 연재한 부국설이 있다.⁵⁰⁾

41) 『中西聞見錄』에서 가져왔음을 기사 본문 말미에 명기

42) 출처를 본문 서두에 “中西聞見錄중의 艾約瑟書”로 저자 명기

43) “占星辨謬”, 『한성순보』, 1884년 3월 27일.

44) “天時雨暘異常考略”, 『한성순보』, 1884년 4월 16.

45) “顯微鏡影燈”, 『한성순보』, 1884년 4월 25일.

46) “二氣燈之光”, 『한성순보』, 1884년 4월 25일.

47) “法取火”, 『한성순보』, 1884년 6월 4일.

48) “亞里斯多得里傳”, 『한성순보』, 1884년 6월 14일.

49) “歷覽英國鐵廠記略”, 『한성순보』, 1884년 8월 1일; 1884년 8월 11일; 1884년 9월 19일; 1884년 9월 29일; 1884년 10월 9일; 한편 이 기사에서 보이는 ‘본주인’은 『격치회편』 발행자인 傅蘭雅로 추정된다.

50) “廈門에 博聞書院을 設立하다”, 『한성순보』, 1884년 4월 25일; “牛痘의 來歷을

이처럼 중국에서 발행한 많은 신문과 잡지를 이용했는데, 이들 매체들 간행에는 대부분 양무운동에 기여한 선교사와 중국의 학자들이 관여했다.⁵¹⁾ 『한성순보』와 『한성주보』에서 이들 중국에서 발행된 매체들을 기사원으로 활용했음을 미루어 당시 개화관료들이 양무운동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한성순보』와 『한성주보』가 중국의 잡지들이 중국 독자들의 계몽과 교화에 이용된 것과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② 한역 과학기술서에서 가져온 기사들

『한성순보』와 『한성주보』는 서양의 과학기술서를 한문으로 번역한 중국 발행 책들도 많이 활용했다. 흔히 한역 과학기술서로 불리는 이 책들은 대부분 양무운동의 중심을 이루었던 강남제조총국에서 부난아(傅蘭雅, John Fryer)의 책임 아래 번역, 출판되었거나, 기타 선교활동의 중심지에서 번역, 편찬된 책들이었다. 이 책들 가운데 약 220종이 조선정부에 의해 1870년대 말부터 의욕적으로 수집되었다.

한역 과학기술서 가운데 『기기화륜선원류고(機器火輪船源流考)』는 『한성순보』와 『한성주보』에 8번 실렸다 (표 1 참조). 이 책은 『증서문건록』이나 이미 다른 책에 게재된 기사들 40편 정도를 모아, 처음 실린 글의 제목인 ‘기기화륜선원류고’를 그대로 책이름으로 삼은 88장 정도로 만든 작은 책이었다. 이 책에서 가져온 기사들은 애약슬이 증기선의 발명과 개량 과정을 설명한 ‘화륜선원류고’, 정위량이 기상관측용 기구(氣球)를 소개한 ‘비차측천(飛車測天)’, 기차를 소개한 ‘신식철로(新式鐵路)’⁵²⁾, 그리고 덕정(德貞, John Dudgeon)이 쓴 것으

論함”, 『한성순보』, 1884년 4월 25일; “英國癡狂院”, 『한성순보』, 1884년 6월 4일; “富國說 上”, 『한성순보』, 1884년 5월 25일; “富國說 下”, 『한성순보』, 1884년 6월 4일.

51) 매체 발행과 관련한 선교사와 중국 유학자들의 참여와 활동에 대해서는 Benjamin Elman, 앞의 책, 283-319쪽을 참조할 것.

52) “飛車測天”, 『한성순보』, 1884년 2월 7일; “新式鐵路”, 『한성순보』, 1884년 4

로 보이는 ‘차륜궤도설(車輪軌道說)’⁵³⁾, 잠수복을 설명한 ‘물에 들어가는 새로운 법(入水新法)’, 자동차를 소개한 ‘논토로화차(論土路火車)’ 등이다.⁵⁴⁾ 또 새로운 무기와 화약 소개 기사인 ‘화기신식(火器新式)’도 실려 새롭게 서양에서 개발된 무기들을 소개했다.⁵⁵⁾ 『기기화륜선원류고』에서 옮긴 기사들은 주로 기기들의 구조, 용도를 개관한 것으로 실제 그 기기나 발명품의 원리를 깊이 있게 다루기보다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서양인들이 서양 신문이나 잡지를 토대로 글을 쓰거나, 재구성해 소개한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한성순보』와 『한성주보』에는 서양 과학 각 분야의 초보적 내용을 담은 한역과학기술서도 실렸다. 대표적인 예가 『격치계몽(格致啓蒙)』 권지삼(券之三) ‘천문(天文)’이다.⁵⁶⁾ 편집자들은 이 책에서 뽑은 해와 달, 행성과 그 운동에 대한 글을 1887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7회에 걸쳐 연달아 실었다.⁵⁷⁾ 이 기사들은 항성의 개념과 태양을 설명한 ‘논일여항성(論日與恒星)’, 달과 달의 운동을 다룬 ‘논월병월지동(論月并月之動)’, 일식과 월식의 원리를 설명한 ‘논일월식(論日月蝕)’, 태양계의 행성을 설명한 ‘논태양소속천궁제성(論太陽所屬天穹諸星)’ 등이다.⁵⁸⁾ 천문 관련 『한성주보』 기사와 『격치계몽』 ‘천문’ 제목을 비교해보면 이들 기사들은 『격치계몽』 ‘천문’의 각 장

월 6일.

53) “車輪軌道說”, 『한성순보』, 1884년 2월 7일.

54) “入水新法”, 『한성순보』, 1884년 3월 8일.

55) “火器新式”, 『한성순보』, 1884년 4월 6일; “論土路火車”, 『한성순보』, 1884년 2월 7일

56) 羅斯古(英) 纂; 林樂知(美) 鄭昌楨(清) 同譯, 『格致啓蒙』 제3권 「天文」(규중 2970).

57) 『한성주보』에는 『격치계몽』 권3을 전제한 기사들이 더 많았을 것이다. 전제 기사들이 연재되었고, 연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간 동안 발간된 신문들 가운데 보존되지 않은 『한성주보』가 매우 많기 때문이다.

58) “論日與恒星”, “論月并月之動”, 『한성주보』, 1887년, 6월 20일; “三論日月之蝕”, 『한성주보』, 1887년 7월 11일; “論太陽所屬天穹諸星”, 『한성주보』, 1887년 7월 18일; “論月爲何體”, 『한성주보』, 1887년 7월 18일; “論各行星”, 『한성주보』, 1887년 8월 1일; “四續軌道行星”, 『한성주보』, 1887년 8월 8일.

제목과 내용을 그대로 옮겼다. 1887년 8월 8일 기사 마지막에 “다음에는 지구 궤도 밖[외궤(外軌)]에 있는 행성(行星)에 대해 논하겠다”고 다음 호를 예고한 글을 보면, 화성 목성과 같은 외행성들을 소개한 글을 계속 실었을 것으로 보인다.⁵⁹⁾

기상학 관련기사도 책을 그대로 전재하는 방식으로 연재되었다. 『측후총담(測候叢談)』이 그것으로, 김계리(金楷理, Carl Kreyer)가 구역(口譯)하고 중국 수학자로 유명한 화형방(華衡芳)이 받아 써 1877년 출판된 책이다.⁶⁰⁾ 1882년 군계학조단의 일원이었던 상운이 가지고 귀국한 이 책 가운데 권2가 『한성주보』에 전재되었다.⁶¹⁾ 주요 내용은 바람이 생기는 원인과 바람 방향에 대한 설명인 ‘논풍(論風)’, 해풍과 육풍의 특징을 살펴본 ‘해풍육풍(海風陸風)’, 지구 자전에 의해 생기는 온대 지방 바람의 방향을 설명한 ‘온대내풍개방향지리(溫帶內風改方向之理)’, 열대 지역에서 발생하는 폭풍의 특징들에 대한 설명인 ‘구풍(颶風)’, 대기 흐름을 해수의 물결에 비유해 설명한 ‘논공기지랑(論空氣之浪)’ 등과 같이 바람의 발생 및 대기의 순환 원리 등이 중심 내용이었다. 또 기상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해류의 흐름을 설명하는 한편 구름과 이슬의 발생 원리를 포함한 물의 순환을 해설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 기사들에 의하면 기상 이변은 전통적 재이론(災異論)에서처럼 더 이상 군주의 통치에 대한 하늘의 경고에 의한 것이 아닌 순전히 자연 현상이었다.⁶²⁾

59) 1887년 8월 8일 이후부터 1888년 1월 23호 이전까지, 즉 76호부터 98호까지 『한성주보』가 남아 있지 않아 연재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60) 金楷理(美) 口譯; 華衡芳(清) 筆述, 『測候叢談』(奎中 2822), Vol. 1, 2.

61) “論風”, 『한성주보』, 1887년 3월 14일; “海風陸風”, “溫帶內風改方向之利1”, “颶風”, 『한성주보』, 1887년 3월 28일; “論空氣之浪”, 『한성주보』, 1887년 4월 11일; “論海水流行”, “論水氣凝降下”, 『한성주보』, 1887년 4월 18일; “論露”, “成雲之理”, “論霧”, “論散熱之霧及水面之霧”, 『한성주보』, 1887년 4월 25일.

62) 그밖에도 천문 점성에 대해 『한성주보』와 『한성주보』는 “개미떼가 인간이 慶事儀式 때문에 燈에 五色실을 꾸며 놓은 것을 쳐다보고 개미 저희들을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으며, 인사에 대한 하늘의 경고인 지진은 “땅 속의 불에 의한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

기상학과 천문학 이외에도 한역 과학기술서적을 이용한 기사로 ‘논양기(論養氣, 산소)’, ‘논경기(論輕氣, 수소)’, ‘논담기(論淡氣, 질소)’(이상 1884년 5월 25일자), ‘논녹기(論綠氣, 염소)’, ‘논탄기(論炭氣, 탄산가스)’⁶³⁾, ‘논탄경이기(論炭輕二氣)’(이상 1884년 6월 4일자)와 같이 『화학감원』을 출처로 한 글을 들 수 있다.⁶⁴⁾ 이 『화학감원』은 화학을 전문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으로 모두 6권에 이르는 방대한 책이다.⁶⁵⁾ 기체 관련 기사들에서 주목되는 것은 당시로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글들을 두 호에 걸쳐 연이어 취급했다는 점이다. 이 기사들은 양기와 경기, 담기, 녹기 같은 기체들의 성질과 채취 방법을 자세하게 다루었다. 이처럼 연달아 상세하게 이들 기체를 다룬 점은 이 기사들을 전후해 이들 기체 이름이 등장하는 기사들이 게재되었기에, 관련 정보를 독자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제공하고자 한 편집자의 의도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양기와 경기, 담기 바로 다음 기사는 불을 채취하는 방법에 관한 기사로, 그 내용 중에는 물을 전기분해해 불을 얻는 방법도 포함되어 있다.⁶⁶⁾ 또 1884년 2월 7일 11호의 ‘기구(氣球)를 타고 하늘을 관측하다’라는 기사나 1884년 4

했다. 이에 대해서는 “占星辨謬”, 『한성순보』, 1884년 3월 27일; “地震別解”, 『한성주보』, 1884년 4월 25일 등을 참조할 것; 4월 25일 이후 6월 13일까지 6주간의 『한성주보』가 남아 있지 않아 『측후총담』의 연재지속 여부는 불확실하다.

63) 『한성순보』에서 설명한 탄기는 탄산가스이다. 『화학감원』의 “炭” 설명을 보면, “탄은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하며, 탄기를 “석탄(煤)과 양기 두 개라 화합한 것을 탄기라 한다. 공기 안에 있다”고 설명해 기체 상태에서는 산소와 결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傅蘭雅 구역, 徐壽 筆述, 『化學鑑原』, 卷三, 39면을 참조할 것.

64) 論養氣; “論輕氣”; “論淡氣”, 『한성순보』, 1884년 5월 25일; “論綠氣”, “論炭氣”, “論炭輕二氣”, 『한성순보』, 1884년 6월 4일.

65) 이 책을 군계학조단의 일원으로 天津에 파견되었던 李熙民(?-?)이 공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김연희, 앞의 글, 247쪽. 화학창에 배정되어 화학을 공부했던 그는 유학 초기, 수사학당에서 외국어를 배우게 되어 있었으나 “입이 둔하여 스스로 자퇴하고 화학을 배우기를 청한” 사람이었다. 그는 화학창에서 화학 교사 承霖의 지도로 이 『화학감원』을 공부했다. 그를 가르친 承霖은 동문관 학생 시절, 畢利幹과 『化學蘭原』을 공동 번역했다.

66) “法取火”, 『한성순보』, 1884년 6월 4일.

월 25일자 19호의 ‘이기등지광(二氣燈之光)’ 등의 기사에서 경기와 양기가 거론되었다. 이런 기사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체에 대한 지식이 필요했고, 『한성순보』 편집자가 이를 제공한 것이다.

이들 기사의 또 다른 특징은 『화학감원』의 내용을 모두 그대로 옮겨 신지 않았다는 점이다. 관련 기체의 내용 가운데 정성적 성질과 제법만을 가져왔다. 또 『화학감원』만으로 기사를 구성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중요한 특징이다. 이 기사들의 서두는 당시 꽤 많은 사람들이 읽은 것으로 알려진 『박물신편』의 글이었다.⁶⁷⁾ 또 『화학감원』의 순서도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 『화학감원』은 염기, 녹기, 그리고 『한성순보』에서 설명하지 않은 전(碘, 요오드), 유황, 인, 석(砂, 규소)을 지나 비로소 ‘탄’을 설명했음에 반해, 『한성순보』는 탄기를 먼저 신고, 녹기를 이어 실었다. 심지어 ‘녹기’는 『화학감원』 제2권에, ‘탄기’는 제3권에 배치되어 있음에도 굳이 ‘탄기’를 먼저 실은 것은 탄기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 탄기의 제법은 다른 기체들과는 달리 『박물신편』과 『화학감원』, 두 권 모두에서 가져와 실었다. 이는 천문학이나 기상학 관련 기사들이 책을 그대로 전재했던 방식과 다른 것이었다.

한역서양과학서를 이용한 편집 태도로 미루어보면, 그들이 언명한 대로 기사의 선택에 신중을 기했을 뿐만 아니라,⁶⁸⁾ 『한성순보』 편집자들은 근대 화학을 포함한 서양 과학에 전혀 무지하지도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는 당시 편집진의 면면에서도 확인된다. 이들 편집진을 세 단계로 나누어 보면, 한성부에서 발간준비를 한 때인 첫 단계에는 박영효, 유길준과 같이 이미 일본을 탐방하거나 유학한 경험에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영선사행으로 중국 천진(天津) 수사학당에서 영어를 공부했던 고영철 등이 참여했다. 두 번째 단계에는 박

67) 각 기체에 대한 기사 가운데 “화학감원에서 논하기를”이라는 語句 이전 글은 각 기체에 대한 『박물신편(博物新編)』의 글이다. 舍信(Benjamin Hobson), 『博物新編』 (규중 4922), 10-11면.

68) “지구론”, 『한성순보』, 1883년 10월 31일.

문국으로의 업무 이관 및 『한성순보』 발행기로, 이 때 박문국 초대 총재에 조사시찰단으로 일본에 다녀온 외아문 독판인 민영목(閔泳穆), 부총재에는 박영효와 수신사로 일본에 다녀온 김만식(金晩植)이 임명되었다. 영선사 김윤식(金允植)의 종형인 그는 김옥균의 ‘치도약론’에 “(김공의)말을 들은 옥균이 곧 일어나 절을 올”린 바로 그 김공이었다.⁶⁹⁾ 그는 친척인 김인식(金寅植)을 주사로, 장박(張博), 김기준(金基駿), 오용묵(吳容默)을 사사로 발탁해 『한성순보』 편집진을 구성했다. 세 번째 단계인 『한성주보』 발행시기에는 기존의 편집진뿐만 아니라 이후 독립협회에서 활동한 박세환, 개화파의 비조인 오경석의 아들 오세창, 일본의 경응의숙(慶應義塾)을 졸업한 현영운 등을 참여시켜 편집진 규모를 확대시켰다. 이처럼 『한성순보』와 『한성주보』의 책임자 및 편집진은 대부분 외유를 통해 서양 문명을 직접으로 접했거나, 박문국에서의 활동을 통해 서구 문물을 경험했고, 『한성주보』 폐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화를 추진했던 세력이었다. 또 그들이 속한 박문국이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소속인 까닭에 외유 경험이 있거나 서양 학문을 배운 같은 아문 소속의 사람들과 교류가 어렵지 않았다. 편집진들은 비록 이 책들을 전재하는 데에 장기 편집계획은 없었을지 몰라도 기사를 무작위로 게재할 정도로 서양 과학에 문외한이거나 무지한 수준은 아니었다.

한역과학기술서를 전제한 『한성순보』, 『한성주보』의 기사들은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새로운 체계에 대한 소개를 중심으로 했다. 우주와 하늘, 그리고 공기를 전통 시대의 설명 방식과는 다른 서양 근대 과학체계로 해석하는 방식을 제시했다.⁷⁰⁾

③ 국내 간행 서적의 게재

『한성순보』, 『한성주보』가 서양 과학기술 관련 기사들의 기사원으

69) “치도약론”, 『한성순보』, 1884년 7월 30일.

70) 이에 대해서는 3절에서 자세히 살펴 볼 예정이다.

로 중국이나 일본과 같이 외국에서 발행된 신문이나 서적만 이용한 것은 아니었다. 이미 1882년 지석영(池錫永, 1855-1935)이 상소에서 지적했듯이 당시 조선에는 개화관료들이 펴낸 책들이 유통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승지 박영교(朴泳敎)가 펴낸 『지구도경(地球圖經)』, 안종수(安宗洙)가 번역한 『농정신편(農政新編)』, 전현령(前縣令) 김경수(金景遂)가 기록한 『공보초략(公報抄略)』 등이 그것이다.⁷¹⁾ 이 책들 가운데 김경수의 『공보초략』은 중국에서 발간되었던 잡지들의 기사를 전제하거나 간단하게 정리해 만든 책으로 상, 하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상권은 136면, 하권은 123면으로 각각 30여개의 글이 실려 있다. 상권에 실린 ‘영국수정궁(英國水晶宮)’, ‘화기신식’, ‘입수신법’, ‘비차측천’, ‘일본재필(日本載筆)’ 등은 『한성순보』에 게재된 기사이기도 하다. 『농정신편』은 조사시찰단 수원이었던 안종수가 일본 농학자 진전선(津田仙)으로부터 받은 서구 근대 농서 여러 권을 연구해 편찬한 것이다. 이는 1885년 광인사(廣印社)에서 활자본(신식활자본)으로 간행되었다.

이처럼 조선에서 발행된 책 가운데 『한성순보』에는 이우규(李祐珪)의 『잠상촬요(蠶桑撮要)』가 실렸다. 이 책은 서문에서 이우규가 밝혔듯이 독서에 의존해 중국의 양잠법을 소개하고 도입하기 위해 청학관(靑鶴館)에서 목판본으로 간행된 책이었다. 이 책은 1884년 7월 13일 “국내관보”란에 ‘잠상촬요’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는데, 『한성순보』 총 24면 가운데 약 13면, 즉 반 이상의 지면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양이었다.⁷²⁾

이 책 이외에도 『한성주보』에는 교재로 쓰일 것을 염두에 두고 지은 『지리초보』 등이 국한문으로 실리기도 했다. 『지리초보』는 누가

71) 『承政院日記』, 1882년(고종 19년) 8월 23일.

72) 기사 말미에 “이상의 원고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하편에 계속하여 등재할 것이다”라고 연재를 예고했지만, 더 이상 기사를 찾을 수 없었는데, 이는 이우규의 책 역시 같은 곳에서 끝났음을 미루어 책 자체가 더 이상 진척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는 책임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1886년 8월 23일 신문 ‘집록’, ‘지리초보 권지일’을 제목으로 하는 기사 바로 앞글에서 소학교 설치에 따라 『지리초보』를 신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어, 이 책이 소학교에서 가르쳐질 것을 대비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⁷³⁾ 더불어 이 기사에는 “태서의 서책들을 참고한 것이므로 감히 내 뜻을 함부로 섞지 않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박문국 내에서 한역과학서의 국한문 번역작업도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1886년 8월 23일, ‘지리학’, ‘천문지리학’, ‘지구형상’, ‘경위도선’이 실렸고, 8월 30일과 9월 6일, ‘자전’, ‘공전’이 잇달아 실렸다.⁷⁴⁾ 국한문 혼용의 글로 마지막에 보이는 기사는 9월 13일 ‘지리초보 제7장’을 제목으로 하는 지구 기후대에 관한 기사였다.⁷⁵⁾

『한성순보』와 『한성주보』에 실린 이런 책들은 기본적으로 중국 저서나 한역 서양과학서를 저본으로 편집하거나 번역한 저작물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다른 기사들과는 차이가 뚜렷하다. 같은 주제를 다룬 한문 기사들과는 달리 매우 쉽게 서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당시 『한성주보』에 실린 글들은 박문국을 중심으로 외국 문물 관련 서적의 번역이라는 기본적인 학술 활동이 미약하게나마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3. 『한성순보』, 『한성주보』로 본 조선정부의 근대 문물 도입 노력

1) 근대 서양 문물을 채용한 국정 개혁 정책과 『한성순보』, 『한성주보』

『한성순보』, 『한성주보』에는 주로 중국에서 발행한 신문, 잡지, 그리고 서학서들을 전재한 다양하고 방대한 기사들이 실렸음을 살펴보

73) “집록”, “지리초보 권지일”, 『한성주보』, 1886년 8월 23일.

74) “지리초보 권지일”, 『한성주보』, 1886년 8월 23일; “地理初歩 第五章 自轉”, 『한성주보』, 1886년 8월 30일; “地理初歩 第五章 自轉 續稿”, “第六章 公轉”, 『한성주보』, 1886년 9월 6일.

75) “地理初歩 第七章”, 『한성주보』, 1886년 9월 13일.

았다. 이런 기사들이 게재된 데에는 기본적으로 서양의 근대 문물이 개화정책 수립과 수행에 중요하다는 개화관료들의 판단이 존재했다. 이런 생각은 개화세력의 전유물만은 아니었다. 성균관 전적(典籍) 변옥(卞鑄)은 “기타 편리한 기구들과 기묘한 의술과 농사법으로 백성들의 생활에 유익한 것은 배우고 본받아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들은 모두 해외신서(海外新書)에 실려 있으니 이를 간행해 달라고 상소하기도 했다.⁷⁶⁾ 이런 요구가 당시 중앙정부 내에서만 제기된 것은 아니었다. 앞에서 살펴본 유학 지식영도 이런 요구를 담아 상소했다.⁷⁷⁾ 비록 그의 요구인 연구를 위한 ‘일원(一院)’이 만들어지지지는 않았지만, 『한성순보』, 『한성주보』의 발행은 이 요구에 부응하는 일이었다.

조선정부는 개화관료들의 근대 과학기술에 대한 판단과 인식을 토대로 국정 정비와 제도 개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다. 이런 노력은 갑신정변으로 개화세력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지속되었다. 이런 움직임은 『한성순보』와 『한성주보』에서 줄곧 포착할 수 있으며, 특히 서양 과학기술 관련 기사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었다. 임오군란 이후 심화된 청국의 내정간섭 및 압박에도 불구하고 조선정부는 근대 문물도입의 실무를 담당할 부서를 창설하는 등 다양한 개화 정책을 시행하려 했고, 이것이 조선정부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국정 운영에 민의를 수렴한 결과임을 신문을 통해 알리려 했다.

실제 『한성순보』 발간 자체가 조선정부의 근대 문물 도입을 통한 국정 개혁의 일환이었다. 새로운 인쇄 매체의 탄생이 아니라 전통적 조보(朝報)를 개혁한 것이라고 해도 『한성순보』 창간 의의는 매우 크다.⁷⁸⁾ 조보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전현직(前現職) 고위관리들에게만

76) 『고종실록』, 1882년(고종 19년) 10월 7일.

77) 지식영은 『만국공법(萬國公法)』, 『조선책략(朝鮮策略)』, 『보법전기(普法戰紀)』, 『박물신편(博物新編)』, 『격물입문(格物入門)』, 『격치회편(格致彙編)』과 같은 중국에서 발행된 서양관련 서적뿐만 아니라 조선의 개화관료들이 펴낸 책들을 거론하며 이들 책들을 수집하고 각 지역의 유학자들에게 열람하게 하자고 상소했다. 이에 대해서는 『承政院日記』, 1882년(고종 19년) 8월 23일 기사를 참조할 것.

78) 『한성순보』가 창간되었다고 조보가 완전히 폐간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배포했지만, 『한성순보』는 조보에서 다루는 기사들을 정기적으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 곳곳에 파견된 360여개에 달하는 군현(郡縣) 단위의 외직(外職) 관리들, 그리고 지방 유학자들에게까지 필사가 아닌 ‘인쇄물’로 제공했다.⁷⁹⁾ 조보를 인쇄해 팔았던 상인과 이를 허락한 관리들을 모두 유배와 같은 중죄로 다스렸을 정도로 중앙정부가 철저히 정보를 통제했던 이전 시대와 비교하면, 국가에서 『한성순보』를 인쇄해 전국으로 배포한 일 자체가 매우 획기적인 개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⁸⁰⁾ 『한성순보』 기사들이 한양을 중심으로 유통되던 청에서 출간된 서양 문물과 관련된 책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감안하면, 『한성순보』를 읽는 것만으로 외직 관리와 더불어 지방 유학자들은 당시 한양에서 유통되던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을 수 있었다. 특히 『한성주보』에서는 전체 발행기간의 1/4에 불과했지만 국문기사도 실려 한문을 모르는 사람들도 정보 소통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기도 했다. 『한성순보』, 『한성주보』 발행은 한양 고급 관료들이 독점하던 정보들을 백성에게 개방한 사건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다루는 정보의 양과 주제도 이전의 조보에 비해 확장되었다. 『한성순보』, 『한성주보』에는 전통적으로 실렸던 왕명 출납과 인사 정보 등 조보의 내용뿐만 아니라 조선정부가 행한 여러 서양 문물 도입을 위한 노력들이 기사화되었다. 특히 1884년 갑신정변 이래 갑신정변에 연루된 개화세력들의 글의 유통이 통제된 상황에서도 그들의 주장이 『한성주보』를 중심으로 유포되었음은 주목할 만하다.⁸¹⁾

김영주, 앞의 글, 263-264쪽.

79) 유중교, 앞의 글.

80) 조보 인쇄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김영주, 앞의 글, 274쪽을 참조할 것.

81) 개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지목된 책들 대부분을 저술한 신진 개화세력들은 갑신정변에 어떤 방식으로든 연루되었기에 유배당하거나 망명했고, 따라서 그들의 책들 역시 정부로부터 유통이 통제되었다. 특히 김옥균의 『기화근사』는 찾기 어렵고, 1885년 발간 직후 새로운 농법의 전수라고 극찬받았던 『농정신편』조차 안중수가 갑신정변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으로 1886년 유배당하자, 곧 통제되었다. 이 책은 1895년 안중수가 복권되고 난 이후에야 재간행되었다. 1906년

이런 신문 발행을 통해 조선정부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을 전국에 알려 지지 세력을 형성하려 했다. 대표적 예가 신무기 도입 정책과 관련한 기사들이었다. 1860, 1870년대 불과 10년 사이에 두 번의 양요를 겪은 조선정부가 새로운 무기와 화약 제조법 도입에 관심을 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서양 무기제조기술을 익히기 위해 군계학조단을 천진(天津)에 파견했던 조선정부는 1883년 기기국을 설치했고, 1884년 재래 무기를 만들었던 군기시를 기기국에 합치는 등 근대식 무기제조를 위해 정부조직을 개혁했다.⁸²⁾ 기기국 주도로 1884년에는 번사창(燔沙廠, 제철소)을 조성했고, 1887년에는 본격적 무기제조 및 수리공장인 기기창도 열었다. 조선정부는 이런 일련의 작업과 함께 신무기와 관련한 기사를 게재해 지지층을 형성하는 일도 병행했던 것이다.⁸³⁾ 『한성순보』에 서양 무기의 날카로움과 정확함, 서양의 지속적인 무기개발에 관한 기사들을 적지 않게 실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벌어지고 있는 청나라 등 외국의 전쟁 상황을 보도하면서 군함, 대포 등 대형화기와 개인화기와 같은 신무기 확보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던 것이다. 강선을 이용한 후장식(後裝式) 총이나 자동연발 기관총 등 신식 무기의 우수함을 소개하는 기사나⁸⁴⁾ 레밍턴 총을 제작하는 미국 무기공장의 규모, 생산제품에 관한 기사를 싣기도 했다.⁸⁵⁾

『황성신문』에 50전에 판매한다는 이 책의 광고가 실리기도 해 지속적으로 간행되어 유통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 남아있는 판본은 대부분 1905년과 1930년대에 발행한 것이다. 이런 개화 관련서적들이 유통이 쉽지 않은 1885년 이후, 개화와 서양 문물도입과 관련한 정보는 『한성주보』가 주축이 되어 배포가 이루어졌다.

82) 이에 대해서는 김연희, 『영선사행 군계학조단의 재평가』, 『한국사연구』 137호 (2007.6), 237-267쪽을 참조할 것.

83) 조선정부는 군계학조단 파견에 적지 않은 반대를 경험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권석봉, 『영선사행고』, 『청말대조선정책사연구』 (일조각, 1997), 156쪽을 참조할 것.

84) “火器新式”, 『한성순보』, 1884년 4월 6일.

85) “미국의 利名登 製造廠”, 『한성순보』, 1884년 5월 5일.

『한성순보』의 제철관련 기사는 기기국과 번사창 개국을 전후해 많이 실렸다. 새로운 무기 제조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장애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가장 큰 일 가운데 하나가 새로운 제철 방식의 도입이었다. 소규모, 수동식의 전통 제철로는 새로운 서양 무기를 제조하기 어려웠으므로 서양의 대량 생산 제철공정과 재래 방식과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일이 시급했다. 『한성순보』에는 서양의 제철방식을 설명한 기사들이 실렸는데, 예를 들면 ‘태서의 제철법’과 ‘역람영국철창기략’과 같은 기사였다. 이 기사들은 근대 서양에서 행해지는 제철기술은 화학에 기본을 두었다고 전제하고, 제철은 모래나 돌의 감별에서 시작한다고 설명하면서 양기(산소) 비율에 따른 철광석의 분류 방법을 제시하는 한편 철광석으로 숙철이나 강철을 만드는 과정이 전통 방식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설명했다.⁸⁶⁾

『한성순보』에는 조선정부가 주력했던 식산정책도 나타나 있다. 조선정부는 1880년대 초반부터 농업과 잠업에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고가로 매매되는 비단에 주목했다. “(잠업은) 농업과 더불어 국가의 대본(大本)”으로 “생재(生財)의 근원으로 설정해 보호육성하겠다”며 국가 산업으로 육성 지원하겠다고 천명했다.⁸⁷⁾ 잠상국(蠶桑局)을 설치하고 잠상규칙을 제정해 “농상(農桑)에 관한 상황과 개간과 파종(播種)의 허실(虛實)을 사계절(四季節)의 초하룻날마다 본 아문에 자세히 보고하라. 수령(守令)의 전최(殿最)도 이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지방 관리들을 독려하기도 했다. 그 일환으로 1884년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주사 김사철(金思轍, 1847년-?)은 중국의 『증상재종법(曾桑裁種法)』, 『양잠소사법(養蠶櫟絲法)』 등을 이우규에게 전해주며 책을 저술하게 했다. 이우규는 이 책들을 저본으로 앞에서 살펴본 『잠상촬요(蠶桑撮要)』를 편찬했으며, 이 책은 1886년에 국문의 『잠상집요』로 번역된 것으로 보인다.⁸⁸⁾ 이우규의 『잠상촬요』 마지막에 소

86) “태서의 제철법”, 『한성순보』, 1884년 5월 15일.

87) “內衙門布示”, 『한성순보』, 1883년 12월 29일.

개된 ‘잠상규칙(蠶桑規條)’은 『한성순보』에도 부록으로 첨부되어 정부 정책과의 연관을 살피게 한다.⁸⁹⁾

그밖에도 『한성순보』를 통해 중앙정부에서 전통적 동전주조방식을 탈피함과 동시에 화폐주조권을 정비하려 전환국 개설을 추진했음을 알 수 있다. 임진왜란 이후 화폐는 중앙정부는 물론 평안감사, 의주부윤, 강화유수 등에서도 주조했는데, 이렇게 분산된 주조권을 전환국개설을 계기로 중앙정부가 통폐합함으로써 화폐남발에 따른 문란한 통화 상황을 정리하려 했다.⁹⁰⁾ 즉 전환국을 설립하고 1884년 7월 독일 화폐주조기를 확보, 설치함으로써 다른 주조소의 화폐들보다 정교하게 백동화를 생산해 사전(私錢)과의 구별 기준을 만들려 했던 것이다. 이즈음, 『한성순보』는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서양의 화폐 제도에 대한 기사들을 보도했다.

이처럼 『한성순보』와 『한성주보』의 과학기술 관련 기사에서 당시 조선정부가 부국강병을 이루기 위해 계획하고 수행했던 다양한 서양 근대문물 도입 정책과 노력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통신체제 개혁을 위한 우정총국, 세국의 기선 운반을 통한 재정 기반 확충을 목적으로 한 전운국, 천연두 예방과 검역 등 근대 보건 위생 정책 실시를 위한 우두국, 서양 의료 체계 도입을 위한 제중원, 농업생산성 향상과

88) 김영희, “대한제국 시기의 잠업진흥정책과 민영잠업”, 『대한제국연구(V)』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1986), 7-8쪽; 이우규 편, 이희규 역, 『잠상집요』 (규 4622). 이에 대해서는 “해제”, 『蠶桑輯要』 (규4622), <http://e-kyujanggak.snu.ac.kr> (2010년 10월 5일 접속) 참조

89) 『養桑規則』, 『한성순보』, 1883년 12월 29일; 한편 『한성순보』, 1883년 12월 1일의 內衙門 布示는 農桑司를 설치하여 統戶와 農桑茶 등을 관장하게 되면서 戶法을 밝힐 것과 제언의 수축, 한광지의 개간, 진황지의 起耕, 蠶桑의 필요성 등을 신칙하고, 몇 가지 법을 개록하여 전달한다고 했고, 이는 1883년의 甘結安山에 나타나 있다. 이를 미루어 보면 농상사와 관련된 여러 규칙이 안산뿐만 아니라 전국의 각 읍면에 전달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한성순보』, 1883년 12월 1일; 甘結安山(甘結安山) (古 4255.5-10)을 참조할 것.

90) 『고종실록』, 1883년 10월 18일. 당오전의 발행권을 중앙에서 장악하고, 강화, 평안, 의주에서는 엽전만을 주조하는 것으로 한정했다.

상업 작물 다양화 및 낙농 기술 도입 교두보로서의 농무목축시험장, 광업의 본격화를 위한 광무국, 그리고 이런 서양 문물 도입 담당자 양성을 위한 육영공원 등 조선정부가 시행한 서양 문물 도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보도했다. 이런 조선정부의 개화 정책과 기사의 관계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추진정책	『한성순보』, 『한성주보』 기사	조선정부의 개화정책 추진 상황
서양 인쇄기기 도입		1883 박문국 설립 1883 『한성순보』 발간 1885.12 『한성주보』 속간
서양 무기 제조 공장 설립	순보 11호(18840207) 논중국 전선(戰船) 순보 17호(18840406) 화기신식(火器新式) 순보 20호(18840505) 미국의 이명등제조창(利名登(레밍턴) 製造廠)에 대하여 순보 21호(18840515) 태서의 제철법 순보 21호(18840515) 극로백포창(克虜伯砲(크루프砲)의 상세한 내력 순보 22호(18840525) 제조에 외난(畏難)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논설 순보 29호(18840801), 30호(18840811), 34호(18840919), 35호(18840929), 36호(18841009) 역람영국철장기략	1883 기기국 설립 1884.6 번사창 1884.8 군제개편-군기서를 기기국에 합치 1886.5 기기창, 전환국 조폐창과 통합 설치
화폐 주조기기 도입	순보 9호(18840108) 일본조폐통계표 순보 20호(18840505) 미국의 근보 순보 22호(18840525) 동근(銅斤)을 준비하다 순보 29호(18840801) 미국화폐주조국 순보 29호(18840801) 구미제국의 화폐액 주보 4호(18860222) 논 화폐론 제1 주보 5호(18860301) 논 화폐론 제2	1883. 전환국 설립 1884.7 새로운 당오전 주조 1886.5 전환국 조폐창, 기기창과 통합 설치
근대 통신 체계 운용	순보 4호(18831130) 정군문이 우리나라 수도에 전선을 설치하려 하다 순보 4호(18831130) 전기를 논함 순보 9호(18840108) 전보설 순보 9호(18840108) 각국의 육지 전선 순보 9호(18840108) 각국의 해저 전신 사립회사 순보 9호(18840108) 각국의 해저전선	1882. 우정사 설치 1884.1 부산-나가사키 간 해저전선 1884.4 우정총국 개국 1885 의주합동에 의한 서로전선 가설 1887 남로전선 자설

추진정책	『한성순보』, 『한성주보』 기사	조선정부의 개화정책 추진 상황
	순보 11호(18840207) 전보신식 순보 14호(18840308) 중국의 전선설치상황 순보 15호(18840318) 1882년 전기사 순보 15호(18840318) 태서 우체(郵遞) 순보 16호(18840327) 전선근간 순보 22호(18840525) 강음에 전국을 설치하다 순보 27호(18840713) 10성의 연전 순보 29호(18840801) 전보국에서 증궁보(曾宮保)에게 올린다 순보 29호(18840801) 중국전신국 순보 34호(18840919) 전선에 대한 공정(公證)	1891 북로전선 가설
증기선 도입	순보 3호(18831120) 중국 초상국 상선의 진수식 순보 11호(18840207) 신조대함 순보 25호(18840623) 독일 세무사 최림이 중국 총리아문에 철로개설을 요청하여 조목별로 진술하다 순보 27호(18840713) 항해설 순보 28호(18840722) 기선을 가지고 오다 순보 31호(18840821) 범국항업(航業) 순보 33호(18840910) 화륜선 속력 주보 47호(18870124) 선정관(船政館)	1883 전운서 설치 및 태화양행 운행 협정 1884 전운국 설치 1884.7 미국계 미들튼 기선회사와 협약(파기) 1886 세창양행(희화호:인천-상해)
서양 의료 기술 도입 ⁹¹⁾	순보 15호(18840318) 일본관의원 순보 16호(18840327) 각해구에 마땅히 서의학당(西醫學堂)을 설립해야한다는 논 순보 19호(18840425) 우두의 내력을 논함 순보 20호(18840505) 만국위생회 순보 23호(18840604) 영국전광원(英國癲狂院) 순보 25호(18840623) 일본군의 순보 29호(18840801) 논향강정결지방 주보 54호(18870314) 진기(診氣)를 상술(詳述)함	1885 광혜원(이후 제중원으로 개칭) 1885 우두국 설치
중국식 잠업 도입	순보 7호(18831219) 양잠규칙(養蠶規則) 순보 27호(18840713) 잠상촬요(蠶桑撮要)	1884 청에서 뽕나무 수입 1884 잠상국 설치 1886 종상소 설치
서양식 농법의 도입	순보 9호(18840118) 일본개구(開溝) 순보 16호(18840327) 아(俄)국농업 순보 16호(18840327) 이(伊)국에서 차를 심다 순보 29호(18840801) 각국의 경지 및 목축수	1884 농무목축시험장 1884 내부고시에 의한 농무국 설치

추진정책	『한성순보』, 『한성주보』 기사	조선정부의 개화정책 추진 상황
	일람표(牧畜數一覽表) 주보 3호(18860215) 외국농사를 시험하는 거시라 주보 17호 (18860524) 권농규칙조등(勸農規則照登)	
서양 채광기술 적용 개광사업 추진	순보 5호(18831209) 신강풍토기 순보 7호(18831229) 러시아 광무 순보 9호(18840108) 미국 금은산맥 순보 34호(18840919) 청, 개광할 기기를 미 리 구입하다 순보 34호(18840919) 광무를 정돈하다(청) 주보 1호(18860125) 중국석탄심부 주보 16호(18860517) 땅을 사서 금을 캐다. 주보 18호(18860531) 애굽석유 주보 22호(18860627) 광산개설을 논함 주보 23호(18860705) 금광행사 주보 25호(18860823) 좌도(佐度)의 금광이라 주보 32호(18861011) 광학교 주보 47호(18870124) 광산총액 주보 54호(18870314) 전석이 새로 나오다 주보 57호(18870711) 황금포시 주보 68호(18870620) 변사흥리(邊師興利) 주보 71호(18870711) 목사가(墨斯哥)의 근문 주보 71호(18870711) 대만에 대한 기요 주보 74호(18870801) 금은산출액	1884 군량부족 타개를 위 한 채광 윤허 1887 광무국 개설
근대 교육 도입	순보 15호(18840318) 각국학업소동, 학교 순보 18호(18840416) 덕국학교론약(花之安, 서국학교) 순보 19호(18840425) 덕국지략 속고 주보 1호(18860125), 2호(18860201), 3호 (18860215) 논학정(論學政) 제1, 제2, 제3 주보 32호(18861011) 광학교 주보 24호(18860816) 법국학정 주보 47호(18870124) 천진무비학교 시험	1883.8 원산학사(민간) 1886.6 육영공원(1884년 말 계획) 설립

표 2. 『한성순보』, 『한성주보』 기사와 조선정부 개화정책(괄호 안은 발간 연월일(양력))

91) 조선정부가 시행한 보건 의료 정책과 관련한 기사들도 적지 않게 게재되었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기사의 대강만 적었다. 이미 신동원이 『한국 근대 보건의료사』(한울아카데미, 1997)에서 분석했기 때문이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정부의 개화정책 수립 및 실행 전후에 『한성순보』와 『한성주보』에는 이와 관련된 과학기술 기사들이 대거 보도되었다. 이들 기사들에는 조선의 개화관료들이 서구 문물을 도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관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정책 지지 여론을 확산시키고 독자들의 참여를 촉구하는 등 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했음이 드러나 있다.

2) 백성계몽과 근대 세계관의 확산

『한성순보』와 『한성주보』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서양 과학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개화관료의 노력은 단지 정부정책과 관련한 기사를 게재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런 기사들 이외에도 천문학과 기상 그리고 지리 관련 기사가 많이 실려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한문 기사도 많았지만, 국문 및 국한문기사도 적지 않았다. 국한문 혼용체의 기사와 국문 기사는 『한성주보』에 실렸는데, 정부 발행의 신문에서 최초로 국문을 이용한 글이 실렸다는 점뿐만 아니라 이 국문기사 대부분이 지리학 관련 기사라는 점은 매우 특기할 만하다(표 3 참조). 가장 먼저 실린 국문기사는 1호의 ‘늑주총론’이었다. 『한성주보』는 당시 지리학을 하늘과 땅을 포함한 분야로, 이를 천문지리, 자연지리, 방제(邦制)지리로 분류했는데, 이 ‘늑주총론’은 방제지리에 속했다.⁹²⁾ 유사한 내용이 『한성순보』에 실리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한성순보』 창간호에 실린 ‘지구론’, ‘지구도해’, ‘주양(州洋)에 대해 논함’ 등이 그것인데, 『한성주보』의 기사들은 『한성순보』의 이 기사들을 요약하고, 번역하면서 수정한 수준이었다. 이 두 신문의 기사들은 분량에서 큰 차이가 나는 이외에 『한성순보』가 지구의 땅덩어리를 아메리카주를 하나로 보아 오대주로 나눈 데에 비해 『한성주보』는 아메리카를 지금과 같이 남북으로 나누어 육대주로 기록한 점, 『한성순

92) 이 분류에 대해서는 “지리초보 권지일”, 『한성주보』, 1886년 8월 23일을 참조할 것.

게재일자	기사제목	비고
1886년 1월 25일	녹주총론	국문전용
1886년 2월 1일	지구전도(동반구 서반구 전도), 예시아 디락(아시아 총론)	국문전용
1886년 2월 15일	예시아 디락(버마, 인도 등 아시아 소재 국가 소개)	국문전용
1886년 2월 22일	유로부 디락(유럽 총론, 러시아, 세야만, 스웨덴 등 국가 소개)	국문전용
1886년 3월 1일	유로부 디락(잉글랜드, 이탈리아 등)	국문전용
1886년 3월 8일	아프리카 디락	국문전용
1886년 5월 24일	이탈리아 디락	국문전용
1886년 5월 31일	이탈리아 디락 속고	국문전용
1886년 6월 31일	천문학(항성, 행성(유성으로 표현), 위성, 태양계 소개)	국문전용
1886년 7월 5일	유성이 운전하는 거시라(수성-해왕성의 소개)	국문전용
1886년 8월 23일	지리초보 권지1. 제1장, 지리학, 제2장 천문지리학, 제3장 지구형상, 제4장 경위도표	국한문 혼용
1886년 8월 30일	지리초보, 제5장 자전	국한문 혼용
1886년 9월 6일	지리초보, 제5장 자전 속고, 제6장 공전	국한문 혼용
1886년 9월 13일	지리초보, 제7장	국한문 혼용

표 3. 『한성주보』에 실린 국문 전용 및 국한문 혼용 포함 지리학 관련 기사

보』가 자연지리로 분류할 수 있는 기후, 산, 바다, 토질 등에 대한 상세한 소개를 기사 안에서 소화한 데에 비해 『한성주보』는 대륙 내의 국가들 소개에 중점을 두어 자연지리에 대한 내용을 거의 찾을 수 없다는 점 등의 차이를 보이지만 그 밖의 정보나 글의 구성 등은 거의 같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방제지리 분야는 『한성주보』에 꽤 장기간 연재되었다. 처음 ‘녹주총론’에서 각 대륙의 크기, 각 대륙의 인구수, 인종을 개관한 데에 이어, 2호에서는 동반구와 서반구로 나누어 ‘지구전도’를 실으면서 ‘아시아지락’을 실었다.⁹³⁾ 2호의 ‘아시아지락’은 3호에서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거론하며 지리 및 대륙의 기후 특징

93) “지구전도”, “예시아디락”, 『한성주보』, 1886년 2월 15일.

등을 설명한 기사로 이어졌다. 4호, 5호에서 유럽지락이, 6호에는 ‘아프리카지락’이 실렸다.⁹⁴⁾ 7호부터 16호는 분실되어 연속 게재여부를 알 수 없지만, 17호, 18호에 ‘이탈리아지락’이 연속 게재된 것을 보면 방제지리 분야의 국문 기사들이 계속 실렸음을 짐작할 수 있다.⁹⁵⁾

지리학 가운데 천문지리 분야의 기사도 국문으로 보도되었다. 22호의 ‘턴문학’과 23호의 ‘유성이 운전하는 거시라’가 그것이다.⁹⁶⁾ 이 기사들에서는 하늘의 별을 항성, 유성(행성), 혜성, 위성 등으로 분류했고, 각각의 크기와 태양과의 거리, 운동 등을 설명하는 한편 유성들의 크기를 비교하기도 했다.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데에도 이 회전을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배타고 배가는 줄 모름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근대 천문학의 매우 초보적인 내용을 담기는 하지만 이 기사들은 국문 전용으로 쓰인 최초의 천문학 기사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한성주보』뿐만 아니라 『한성순보』는 땅이 둥글고, 자전을 하며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다른 행성들 역시 태양을 공전하는 태양계에 대한 기사를 반복해서 게재했다. 이 신문 기사가 묘사하는 하늘은 5행성의 세계가 아니었다. 또 임금에 대한 하늘의 경고로 인식되었던 월식이나 일식은 지구와 달의 움직임에 의한 자연현상일 뿐이었다. 또 지진, 혜성도 마찬가지였다.⁹⁷⁾ 하늘의 현상을 설명하는 방식

94) “유로부터락”, 『한성주보』, 1886년 2월 22일; “유로부터락”, 『한성주보』, 1886년 3월 1일.

95) “이탈리아지락”, 『한성주보』, 1886년 5월 24일; “이탈리아지락속고”, 『한성주보』, 1886년 5월 31일.

96) “천문학”, 『한성주보』, 1886년 6월 31일; “유성이 운전하는 거시라”, 『한성주보』, 1886년 7월 5일.

97) 예를 들면 『한성순보』 “화산폭발에 대한 자세한 서술”, 1883년 12월 9일; 『한성순보』 “홍광이 하늘을 비추다”, 1883년 12월 9일; 『한성순보』 “지진전음”, 1883년 12월 20일; 『한성순보』, “홍발기광”, 1883년 12월 20일; 『한성순보』, “미국견혜”, 1883년 12월 21일; “詳述 天際 紅光”, 『한성순보』, 1884년 1월 8일; “흑기선천”, 『한성순보』, 1884년 1월 8일; “地變誌異”, 같은 신문 등을 들 수 있다.

은 서서히 서양 근대 천문학으로 대체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다. 기상학에 대한 기사들이 『측후총담』을 전제하며 삼 개월 이상 연재 되었음은 이미 앞에서도 살펴보았다. 이 기사들 역시 대기와 물의 순환을 신의 조화나 음양오행체계의 설명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설명했다. 또 기상 이변 역시 왕에 대한 하늘의 경고가 아니었고, 왕이 근신함으로써 통제할 수 있는 현상도 아니었다. 이들 기사에 의하면 천재지변은 자연적 이유로 일어나며, 그것은 자연적 요소로 설명이 가능했다. 그 설명의 중심에는 서양 근대 자연관이 존재했다.

4. 결론

조선정부, 특히 개화관료들은 서양과학기술을 부국강병의 도구가 자 국제 사회에서 경쟁을 위해 필수적인 도구라고 인식, 이를 도입하려 했다. 그리고 『한성순보』와 『한성주보』에는 조선정부가 서양 과학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보인 노력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한성순보』와 『한성주보』에서 보이는 서양 과학기술 관련 기사들은 제철, 개인 및 대형화기, 전신, 증기선, 의료 시설 및 우두법, 새로운 농법 및 양잠법, 채광 기술과 더불어 교육 등 주제의 다양성과 분량의 방대함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 기사들은 주로 중국 한역과학서 및 잡지들을 참조해 전제한 것이기는 했지만, 게재 태도는 무작위적, 임의적이 아니라 조선정부의 정책 개혁과 궤를 같이 하고 있었다. 이들 과학기술 관련기사들은 서양의 문물을 도입해 수행하려 했던 각종 국정개혁 정책들의 시행 시점과 일치하거나 전후에 보도되었던 것이다. 이는 이 신문발행 자체가 조선정부의 서양문물 도입 노력의 일환일 뿐만 아니라 정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보여주는 일이다. 그렇다고 『한성순보』와 『한성주보』에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기사만 실렸던 것은 아니었다. 새로 편입된 국제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세계지리, 세계 각국 지략과 더불어 서양의 근대 천문학, 기상학 등을 보도했다. 이들 기사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 지리인식이

나 전통적 재이론에서 벗어나 새로운 근대적 자연관 및 세계관으로의 이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개화관료들은 이들 기사들을 한문뿐만 아니라 국한문과 국문으로도 보도해 다양한 계층의 독자를 확보하려 했다.

이런 기사들의 출처 역시 대부분 주로 중국 양무운동 과정에서 출판된 신문, 잡지, 그리고 한역 과학기술서, 그리고 이를 토대로 조선의 유학자 및 관료들이 재편집한 책들이었다. 이런 서양 과학기술 관련 기사들은 서구 문물의 도입을 위해 조선정부가 구체적, 실제적으로 국정 개혁 정책을 추진했음을 보여주었다. 또 전국 곳곳의 관리들과 유학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근대 문물 도입 작업에 동참하게 하거나 지지세력화 하려 노력했음을 보여준다. 『한성순보』와 『한성주보』의 과학기술 기사들을 통해 1880년대의 조선정부의 서구 문물도입 노력이 다양하게 전개되었고, 이런 노력들은 1890년대 말 광무정권기에 전개된 각종 개화 정책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